

한국 민족주의의 두 가지 길: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류상영 | 연세대학교*

김민정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두 인물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 방법이 갖는 장점인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그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연설문 분석 결과 '민족'이라는 단어는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월등하게 많이 언급해 그의 정치적 담론에 민족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동시출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민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을 통일과 문화 등의 단어와 자주 사용하였으나,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정신 등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을 같이 자주 사용한 데 반해, 김대중은 민주주의, 세계, 화합 등의 단어와 같이 민족을 자주 사용하였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고,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대항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은 두 지도자가 유사한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적 맥락 및 정치동학과 결합되면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각각 경제성장의 행로와 민주주의의 행로를 밟으며 진화하게 되었다.

주제어 | 민족, 민족주의, 박정희, 김대중,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

* 제1저자, 교신저자

** 공동저자

***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당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 김지원과 김기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 문제 제기: 한국에 ‘민족’은 어떻게 살아있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든지, 민족성(national identity)이 인간과 사회의 가장 내재적인 속성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민족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그리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정치권력과 정당성의 원천으로 작용해 온 사례들은 흔하다. 한국의 역사와 정치도 민족과 민족주의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던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 시기의 어느 정치가든 민족 문제와 민족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시간적·공간적 환경과 맥락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적 맥락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민족 개념이나 민족주의 전략은 그들이 처한 특별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 그들이 민족을 재발견하였든 아니면 상상하거나 새롭게 창조하였든, 그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든 아니면 민족주의의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선택되고 부상하였든, 정치지도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전략과 해당 사회의 민족주의는 분리되기 힘든 관계에 있다¹⁾. 물론 그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동태적으로 발현되며,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혁명적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는지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포착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그들이 추구하였던 민족주의 전략이 어떤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상호관

1)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수많은 학제적 연구들은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종족 상징주의(ethnosymbolism)에서는 “민족은 사회적으로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mith 2010). 반면, 근대주의 시각에서 앤더슨은 민족을 이념이 아니라 ‘상상된 정치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으며(Anderson 2016), 홉스봄과 랜저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전통도 사실은 최근에 발명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민족주의를 권력 강화와 충성심 유발을 위한 국가의 지배수단으로 인식하였다(Hobsbawm and Ranger 1983).

계를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언어학, 심리학, 공학 등 모든 관련된 학문 영역에서도 이 과제가 극복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의 생각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갖는 맥락을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문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전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공식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연설문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선된 단어와 담론을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공개적이며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분석 재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등장, 동원, 진화되었는지를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기초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오랜 기간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경제개발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정치지도자들로서, 이들이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였고 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노선과 역할이 대조적이었던 두 지도자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보여준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져온 역사적 사회적 기원과 맥락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정치 현실에서는 의식과 정서, 정치전략, 그리고 경제제도 등에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인물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달리 발현되고 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단어 빈도와 동시출현 관계가 분석될 것이고, 시기 변화에 따른 빈도수 변화와 함께 단어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맥락 분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식과 정서 수준에 집중하여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을 추적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 모두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하나의 뿌리로 내재되어 있었음이 강조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민족 및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 전략과 경제 제도 및 정책에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구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관한 맥락분석이 정치전략과 경제정책 등의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주요 전략과 정책 등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추구하였던 민족주의가 두 가지 다른 행로로 진화하는 과정과 맥락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결론에서, 우리는 민족 및 민족주의가 특정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와 향후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텍스트 마이닝: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곧 그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언어에는 가치지향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도 함께 반영된다는 사실이 이미 언어해석학과 정책학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이창길 2010, 167). 한국에는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통치제도로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특히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이창길 2010, 168). 본 연구는 대통령의 언어 중에서도 연설문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가치지향과 국가 비전,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과 정책 기초 등을 전달하는 핵심

적 수단 중 하나가 연설문이기 때문이다(이창길 2010, 168; 박준형 외 2017, 58). 또한, 대통령의 능력과 영향력은 그가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얼마나 국민들을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시각(Neustadt 1990)에 따르면,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분석은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적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자체가 직선제가 도입된 198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Chung and Park 2010, 215), 연설문에 사용된 언어들에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들은 2000년대를 훌쩍 넘겨 시작되었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²⁾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히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박준형 외 2017; 이창길 2010; 조수곤 외 2015; 홍주현·윤해진 2014; Chung and Park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연설문을 통해 특정 인물이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단어들을 중시하고 해당 단어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그러한 언어 네트워크의 양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가 다시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하게 다룬 경우는 많지 않다. 샤프너(Schäffner 1996)는 정치적 담론 분석이 언어학적 분석뿐 아니라 그러한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체제도 함께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 담론 분석은 정책결정자의 언어 선택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한국 대통령 연설문 분석은 특정 대통령이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고, 그 단어들 사이의 언어학적 관계가

2) 텍스트 마이닝이란 방대한 분량의 비구조적(unstructured)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해 준구조화 혹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통계적 방법론으로 분석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던 구조화되고 흥미로운 패턴과 정보, 지식 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Feldman & Dagan 1995; Hotho et al. 2005; Tan 1999).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현상적 분석은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단어들이 어떤 정치적·사회적·제도적 맥락 때문에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언어적 선택이 어떻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동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인물이 선택하는 단어와 담론들이 어떻게 그의 가치 지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치경제 정책 혹은 제도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대통령의 다양한 언어적 선택 중에서도 민족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떻게 정치적 동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으나 서로 매우 다른 정치적 지향과 담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란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사람이 연설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선 분석한 후, ‘민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어떤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는지 분석한다. 이는 두 인물이 지향했던 핵심적인 가치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민족에 관한 각자의 정치 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들의 정치경제적 정책들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의 재임기 시절 연설문과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전, 재임기, 퇴임기 시절 연설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대통령들의 재임기 시절 연설문들만을 분석하는데, 이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기간이 긴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과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을 단순히 비교 분석하기에는 연설문의 양적인 차이가 크다. 또한 본인의 정치 인생 중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박정희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연설문만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데 반해, 김대중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동안의 연설문만으로는 그러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어렵다.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으나 동일한 시기에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정권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정치인이었으므로 해당 시기의 연설문들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둘의 인식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달랐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효용이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대통령의 재임기 연설문에 나타나는 일반 단어들보다 그 언어가 갖는 통시적, 공시적 의미가 더 크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일반 국정 관련 단어보다, 각 대통령이 그 단어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 오래된 기원을 갖고,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깊으며, 그 단어가 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이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통령 재임 중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빈도수나 순위 등을 기준으로 국정철학이나 정책 등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존의 대통령 연설문 분석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연설문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전 생애를 통하여 연설문 형태로 남긴 모든 글을 포함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들이 동원하거나 추구한 민족주의가 형성된 배경과 내용을 긴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특성 및 정치 현실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른 모든 대통령과 그들의 연설문을 비교 분석하지 않고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대비되는 두 인물에 집중한 것은 위와 같은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에서의 차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설문을, 김대중은 1966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설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함께 두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활동했던 1979년 이전까지의 연설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박정희의 연설문은 총 1,031개이고 김대중의 연설문은 총 1,275개(취임 전 337개, 재임기 839개, 퇴임기 99개)이다³⁾. 연설문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우선

3)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https://www.pa.go.kr/index.jsp>, 검색일: 2019.10.15)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연설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을 모두

파이썬(Python)의 자연어 처리 및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 패키지를 이용해 문장 부호로 구분된 단어들을 나누어주고, 오픈 소스 형태소 분석 엔진인 MeCab을 사용하여,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다. 기호,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 무의미한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 불용어(stop words) 사전을 활용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만 데이터에 남겼다⁴⁾.

1. 단어 빈도수 분석

우선 본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서 시기별 단어 빈도수를 분석했다. <표 1>은 박정희의 전 임기와 김대중의 취임 전, 재임기, 퇴임 후 연설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순서대로 30개씩 나열한 것이다. 각 단어가 몇 번 언급되었는지(빈도)와 전체 단어 중 해당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의 대통령 퇴임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경제’ 역시 모든 시기에 걸쳐 두 대통령 모두 자주 언급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대통령 모두 재임 시기에 ‘발전’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반면 각 대통령 및 시기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박정희는 연설에서 경제(4위), 발전(6위), 건설(9위), 개발(13위), 수출(18위), 공업(23위), 공장(28위) 등 경제 개발에 관련된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은 취임 전에는 통일(3위), 북한(6위), 남북(21위) 등 북한 관련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으며, 민주주의(7위), 민주(12위), 선거(19위), 독재(27위) 등 민주화와 관련된

포함하였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기록관의 재임기 연설문 자료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편집한 『김대중 전집 I, II』(총30권)에 수록되어 있고 연설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들을 스캔하여 코딩 작업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4) 참고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설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개수는 박정희 연설문은 총 803,892개이고 김대중 연설문은 총 780,880개 (재임전 412,205개, 재임기 313,295개, 퇴임기 55,380개)이다.

단어들도 자주 사용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김대중도 경제(2위), 발전(6위), 산업(22위) 등 경제 관련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다. 김대중이 자주 사용한 단어들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한번 변화했는데, 이 시기에는 북한(1위), 남북(7위), 핵(8위), 한반도(9위), 통일(11위) 등 북한 관련 단어들의 언급 빈도가 크게 상승했다.

〈표 1〉 각 대통령 시기별 단어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1	국민	6293	0.056	국민	6130	0.054	국민	5240	0.051	북한	1488	0.070
2	나라	4312	0.038	미국	3903	0.034	경제	4316	0.042	평화	849	0.040
3	민족	3284	0.029	통일	3896	0.034	세계	4204	0.041	미국	729	0.034
4	경제	3277	0.029	경제	3551	0.031	협력	3158	0.031	대통령	619	0.029
5	정부	3012	0.027	한국	3423	0.030	한국	3037	0.030	협력	602	0.028
6	발전	2904	0.026	북한	3422	0.030	발전	2678	0.026	세계	580	0.027
7	노력	2809	0.025	민주주의	3101	0.027	정부	2634	0.026	남북	570	0.027
8	국가	2697	0.024	정부	2791	0.025	국가	2179	0.021	핵	542	0.025
9	건설	2485	0.022	정치	2738	0.024	노력	2113	0.021	한반도	530	0.025
10	평화	2450	0.022	정권	2628	0.023	평화	2112	0.021	경제	508	0.024
11	정신	2071	0.018	대통령	2337	0.021	나라	2095	0.021	통일	478	0.022
12	조국	2058	0.018	민주	2072	0.018	개혁	1824	0.018	한국	446	0.021
13	개발	1960	0.017	세계	2029	0.018	시대	1648	0.016	국민	396	0.018
14	통일	1957	0.017	나라	1866	0.016	문화	1564	0.015	중국	373	0.017
15	사업	1876	0.017	국가	1836	0.016	대통령	1554	0.015	성공	361	0.017
16	계획	1659	0.015	민족	1741	0.015	21세기	1505	0.015	관계	361	0.017
17	추진	1532	0.014	일본	1625	0.014	감사	1496	0.015	발전	348	0.016
18	수출	1409	0.012	평화	1603	0.014	남북	1487	0.015	대화	347	0.016
19	자유	1378	0.012	선거	1582	0.014	관계	1465	0.014	민족	346	0.016
20	세계	1368	0.012	정책	1521	0.013	기업	1428	0.014	시대	339	0.016
21	농촌	1366	0.012	남북	1507	0.013	북한	1413	0.014	회담	328	0.015
22	역사	1352	0.012	중국	1484	0.013	산업	1234	0.012	해결	324	0.015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23	공업	1344	0.012	협력	1470	0.013	성공	1195	0.012	일본	279	0.013
24	한국	1341	0.012	시대	1462	0.013	민주주의	1167	0.011	국가	242	0.011
25	힘	1334	0.012	발전	1367	0.012	한반도	1162	0.011	감사	236	0.011
26	국제	1311	0.012	자유	1334	0.012	민족	1150	0.011	합의	228	0.011
27	북한	1299	0.011	독재	1261	0.011	추진	1149	0.011	공동	216	0.010
28	공장	1274	0.011	아시아	1220	0.011	위기	1128	0.011	민주주의	210	0.010
29	근대화	1186	0.010	주장	1216	0.011	역사	1114	0.011	동아시아	201	0.009
30	국력	1110	0.010	지식	1206	0.011	지식	1103	0.011	문화	198	0.009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이 동시에 정치적 활동을 했던 1979년 이전에 각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표 2> 참조), 박정희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 관련어들을 자주 언급한 반면, 같은 시기에 김대중은 대통령(4위), 박(9위)⁵⁾, 선거(10위), 박정희(11위), 민주주의(12위), 독재(17위), 민주(25위) 등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민주주의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6위), 일본(8위)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높은 빈도로 언급된 것도 이 시기 김대중 연설의 특징이었다. 국민과 국가·나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자주 언급했다는 점은 유사하나, 워드 클라우드(<그림 1>,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상이한 단어들을 각각 활용해 연설을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 “박 정희씨”, “박 대통령”, “박 정권”, “박 후보” 등의 단어들에서 “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표 2〉 1979년 이전 박정희·김대중 대통령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

순위	박정희		김대중 1979년 이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국민	6293	국민	941
2	나라	4312	통일	546
3	민족	3284	정권	546
4	경제	3277	대통령	509
5	정부	3012	한국	496
6	발전	2904	미국	482
7	노력	2809	나라	466
8	국가	2697	일본	444
9	건설	2485	박	352
10	평화	2450	선거	322
11	정신	2071	박정희	317
12	조국	2058	민주주의	297
13	개발	1960	자유	278
14	통일	1957	정부	271
15	사업	1876	남북	269
16	계획	1659	세계	259
17	추진	1532	독재	259
18	수출	1409	정책	258
19	자유	1378	정치	252
20	세계	1368	전쟁	227
21	농촌	1366	경제	225
22	역사	1352	국가	222
23	공업	1344	평화	210
24	한국	1341	민족	203
25	힘	1334	민주	202
26	국제	1311	대한민국	179
27	북한	1299	김일성	177
28	공장	1274	공산당	167
29	근대화	1186	신문	164
30	국력	1110	돈	156

2. ‘민족’ 단어의 동시출현 관계 분석

단순히 각 단어의 출현 빈도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동일한 단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이라는 개념은 의식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층적으로 그 의미가 구성되는 단어이다(Özkirimli 2010). 따라서 연설에서 언급된 ‘민족’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빈도수 분석이 아닌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이는 동시출현(co-occurrence)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 연구들은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단어들끼리의 동시출현 밀도를 분석하고 다른 단어들과 동시출현 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단어들을 추려내는데(이창길 2010; 홍주현·윤해진 2014), 특정 단어가 언급되는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끼리 같이 언급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홍주현과 윤해진(2014)이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해당 연구는 대통령 후보 연설문 중 전체 단어 네트워크에서 가장 자주 다른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중심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주로 동시출현 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연구는 동시출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단어들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지만, 두 대통령이 ‘민족’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민족’ 관련 개념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연설문에 나타난 동시출현 단어들을 분석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연설문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정책결정자가 특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모호하게 유추하는 것에 비해 더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위해서는 카운트

벡터라이저(Count Vectorizer)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한 문서 안에서 각 단어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쌍(pair)이 함께 출현하는 것, 즉 이 둘의 엣지(edge)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방식이다. 가중치(weight)⁶⁾가 높을수록 해당 단어들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⁷⁾

<표 3>의 결과를 보면, 박정희와 김대중이 ‘민족’ 관련 단어들을 어떤 다른 단어들과 가장 자주 같이 언급하는지를 알 수 있다. 김대중의 대통령 재임기를 제외하면 모두 ‘통일’이라는 단어와 ‘민족’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문화’와 ‘민족’을 가장 자주 같이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통령 및 시기별로 차이를 살펴보자면, 박정희는 주로 발전(5위), 민족중흥(6위), 극복(10위), 기상(25위), 단결(26위), 번영(29위), 건설(30위) 등 경제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자주 같이 언급하는 한편, 사상(7위), 금지(8위), 정신(16위) 등 생각과 정신에 관련된 단어들과도 민족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함께 언급했다. 김대중은 취임 전과 퇴임 후에는 북한 혹은 남북관계 관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같이 사용했는데, 그 예로는 통일(둘 다 1위), 평화(2위; 9위), 화해(취임 전 24위; 퇴임 후 2위), 공동체(취임 전 3위), 남북(퇴임 후 4위), 분단(퇴임 후 30위) 등이 있다. 또한 취임 전에는 민족과 민주주의의 동시출현 빈도도 14위로 높았다. 한편 재임기 때의 김대중은 화합(4위), 전체(5위), 단합(6위), 세계(7위), 협력(26위) 등 협동과 융화 관련 단어들을 민족 관련어와 자주 언급했다. 이 시기에는 도약(9위), 경제(14위), 발전(22위) 등 경제 발전과 관련된 언어들과 민족 관련어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6) 본 연구에서는 연설문에 언급된 단어들을 벡터(vector)화하여 행렬(matirx) 형태로 문장을 분석했으며 sk-learn의 CounterVectorizer를 이용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7) MeCab의 특성 상 한자와 한글을 따로 형태소로 추출하므로, 같은 단어가 한자와 한글로 따로 카운트된 경우에는 이 둘의 가중치를 더해 조정하였다. 또한, 단어 연결의 방향(source인지 target인지의 여부)이 상관없는 undirected 네트워크이므로 같은 단어들의 조합이 순서가 바뀌어 출현하는 경우 역시 두 가중치를 더해 사후적으로 조정했다. 불용어 사전으로 걸러지지 않은 무의미한 단어들 역시 사후적으로 삭제해 보정하였다.

〈표 3〉 각 대통령 시기별 “민족” 동시출현 빈도수 상위 30개 엮기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민족	문화	1061.16	민족	통일	91.62	민족	문화	72.82	민족	통일	53.15
2	조국	민족	472.28	민족	평화	90.93	민족	독립	61.84	화해	민족	41.32
3	민족	통일	424.07	민족	공동체	80.68	한국	민족	59.75	민족	운명	31.57
4	민족사	民族	350.22	민족	국가	74.24	민족	화합	46.01	남북	민족	22.77
5	민족	발전	338.05	민족	내부	68.95	민족	전체	43.21	민족	장래	18.57
6	민족중흥	民族	314.62	민족	운명	65.90	민족	단합	38.13	민족	안전	17.95
7	민족	사상	293.60	민족	세계	62.34	세계	민족	37.29	민족	안정	17.75
8	민족	금지	249.62	민족	반역자	62.02	국가	민족	35.93	민족	체험	17.75
9	민족	국가	224.47	민족	독립	58.78	민족	도약	34.28	평화	민족	17.49
10	민족	극복	213.76	민족	친일파	54.99	민족	동질	33.78	민족	자주	16.84
11	사관	민족	191.41	민족	교육	53.48	세기	민족	32.03	민족	사이	16.84
12	민족	숙원	162.99	민족	문화	53.06	민족	분단	31.21	국민	민족	14.50
13	민족	오늘	142.54	민족	장래	51.84	민족	자존	30.13	협력	민족	14.11
14	민족	양심	141.25	민족	민주주의	51.45	경계	민족	26.82	민족	공멸	13.25
15	민족	역사	139.87	민족	정부	51.32	민족	시대	25.66	민족	지적	13.17
16	정신	민족	139.66	민족	금지	45.59	미래	민족	25.20	민족	세월	12.71
17	민족	고유	133.87	민족	공멸	40.90	민족	단위	25.12	민족	선구자	12.00
18	민족	앞날	131.45	민족	중국	40.61	민족	연합	24.53	민족	적개심	12.00
19	민족	옹비	126.10	민족	의의	40.35	민족	앞날	24.28	민족	동화	11.83
20	민족	독립	112.30	민족	애정	39.27	민족	운명	23.48	민족	동화력	11.83
21	민족	과업	111.97	민족	함양	39.27	민족	예술	23.26	민족	상실	11.83
22	민족	바탕	108.02	민족	적응	39.27	발전	민족	22.94	대학교	민족	11.51
23	민족	슬기	107.91	민족	주체	38.14	민족	세기말	22.13	세계	민족	11.06
24	민족	동질	104.36	민족	화해	37.93	민족	인종	21.77	민족	사랑	10.72
25	민족	기상	98.63	민족	자본	35.08	민족	되풀이	21.56	민족	정체	10.67
26	민족	단결	96.29	민족	정권	35.08	협력	민족	20.81	민족	중국	10.67
27	민족	지상	88.08	국민	민족	34.74	민족	평가	20.69	민족	변방	10.67
28	민족	비극	86.91	민족	시대	34.65	정부	민족	20.69	민족	흔적	10.67
29	민족	번영	83.73	민족	오늘날	34.62	민족	동화	20.50	민족	여생	9.85
30	민족	건설	83.69	민족	한반도	34.44	민족	정신	19.22	민족	분단	9.74

특히 같은 시기(1979년 이전) 두 인물의 연설문을 비교해 보면(<표 4>), 이들이 민족 관련어를 상이한 맥락에서 언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발전, 국가, 조국, 민족중흥, 단결, 번영, 건설 등의 단어를 자주 동시에 사용하였고, 사상, 금지, 기상 등 생각과 정신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자주 같이 언급하였다. 같은 시기 김대중은 정권(3위), 반민주(4위), 작태(7위), 민주주의(8위) 등 민주주의 관련어들을 활용해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민족 개념을 말했다. 또한 이 시기 김대중은 행복(11위), 사랑(12위), 세계주의(24위) 등 개방적인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과 민족을 함께 자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같은 시기 결의를 다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개방적이거나 화해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함께 언급한 적이 없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은 차이점은 한국 사회가 처한 역사발전의 단계와 박정희와 김대중의 성격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가난과 저개발의 초기 조건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했던 박정희의 전략, 리더십 형태, 개인적 기질 등과, 대중 참여를 주장하면서 형평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김대중의 전략과 종교적 인생관 등이 그들이 선택한 언어 구성의 차이에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1979년 이전 박정희·김대중 대통령 “민족” 동시출현 빈도수 상위 30개 옛지

순위	박정희			김대중 1979년 이전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민족	문화	1061.16	민족	역사	43.67
2	조국	민족	472.28	민족	교육	40.73
3	민족	통일	424.07	민족	정권	38.86
4	민족사	民族	350.22	민족	반민주	35.56
5	민족	발전	338.05	초월	민족애	34.00
6	민족중흥	民族	314.62	입각	민족애	34.00
7	민족	사상	293.60	민족	작태	32.06
8	민족	공지	249.62	민족	민주주의	29.08
9	민족	국가	224.47	민족	동일	28.27
10	민족	극복	213.76	민족	공산당	28.27
11	사관	민족	191.41	민족	행복	27.50
12	민족	숙원	162.99	민족	사랑	27.50
13	민족	오늘	142.54	민족	전투	26.14
14	민족	양심	141.25	활용	민족중흥	26.10
15	민족	역사	139.87	발휘	민족중흥	26.10
16	정신	민족	139.66	민족	의의	25.28
17	민족	고유	133.87	민족	의미	25.28
18	민족	앞날	131.45	민족	처음	25.28
19	민족	웅비	126.10	민족	공화	22.05
20	민족	독립	112.30	민족	운명	22.05
21	민족	과업	111.97	민족	도야	21.15
22	민족	바탕	108.02	민족	나라	20.33
23	민족	슬기	107.91	主義	민족	19.24
24	민족	동질	104.36	민족주의	세계주의	18.50
25	민족	기상	98.63	발견	민족주의	18.50
26	민족	단결	96.29	민족	세계	18.08
27	민족	지상	88.08	민족	능력	17.50
28	민족	비극	86.91	민족	본질	17.50
29	민족	번영	83.73	민족	배척	17.50
30	민족	건설	83.69	민족	급증	17.36

III. 의식과 정서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같은 뿌리

위에 분석된 바와 같이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민족주의가 그들의 사고, 정치전략, 그리고 정책과 주요 제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연설문에 자주 등장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의식과 정서에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로 집약되는 두 인물의 의식에서 가장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박정희시기에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정치전략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다(최연식 2007; 김동노 2010). 하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근대화 정치전략으로 동원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무엇이 이 같은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역사적 맥락과 정서적 요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물론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를 제대로 그려내는 데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많은 학술적 연구들과 이론적 논쟁들이 도움이 된다. 서구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사례로 진행된 연구 쟁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첫째,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생 순서에 관하여 민족이 민족주의를 촉발했다는 견해(Smith 2010)와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했다는 견해(Gellner 1971, 169; Tamir 1995)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속성이 영구히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하는지 등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둘째, 민족주의가 정치적 이념인지(Roshwald 1993), 아니면 문화적 현상인지(Anderson 2016)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즉,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고안된 이념이라는 주장과 영속적이고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대비된다. 셋째, 민족주의와 근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민족주의가 근대화를 추동하였는지, 아니면 근대화의 결과로 민족주의가 발달하였는지에 대한 논쟁(Conversi 2008; Bergholz 2018)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족주의가 합리적인지 비

합리적인지의 논쟁과도 연결된다. 넷째,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인정하더라도 민족주의와 근대화의 동태적인 관계가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지(Breuilly 1993), 아니면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Jaffrelot 2003). 다섯째, 민족주의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이론적 분석들이 존재한다 (Greenfeld 2001; Narin 1997).

한편, 최근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 내 연구들은 주로, 민족주의를 동원한 주체가 누구인지와 민족주의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민족주의의 성격과 시대별 특성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훈(2020)은 한국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시민적 민족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경일(2020)은 ‘한국적인 것’과 근대 형성을 비교역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김동노(2010)는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개발독재 체제를 위한 도구적 민족주의라고 정의하였고,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 민족주의로 규정하였으며, 문상석(2018)도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개인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하였다. 홍석률(2002)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를 관 주도 민족주의로 규정한 반면, 이에 반대한 민족주의의 흐름을 대중적 민족주의로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박의경(2015)은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로의 통합과 민족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승만의 일민주의, 박정희의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장준하의 통일민족주의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김수자(2006)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통일 민족주의로 분류하였다. 문정인(Moon 2012)은 시기별로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주목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기욱(Shin 2006)은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종족적 핏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제임스 프레다와 이기흥과 같이 공저한 논문(Shin et al. 1999)에서는 핏줄이 여전히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이고 분단현실에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그룹 내의 긴장이 더 고조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위의 연구들이 한국 민족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 그리고 이의 시대적 변화를 밝히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정치지도자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동원 내지는 실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청소년기부터 갖게 된 민족에 대한 생각과 이를 자신들의 민족주의로 개념화하여 정치적 전략과 문화적 패턴으로 동원 내지는 확산해 나가는 구체적 행로와 정치경제적 결과들은 미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여 민족이란 단어의 빈도수와 연관어를 분석하면서, 두 인물이 남긴 연설문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갖게 된 민족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각각 구현하고자 한 민족주의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연설문과 연설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글들을 보면, 두 지도자의 정치전략이나 철학의 차이와 무관하게,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던 의식적 정서적 성격과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김대중의 글 중에서 그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처음 본격적으로 표현된 문건은 1954년 1월 7일에 <새 별>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갑오년 2대 과업: 자조의 노력으로 통일과 민생 해결”⁸⁾이다(김대중 1954). 이 글에서 당시 청년 김대중은 “민족의 운명과 사활을 좌우할 중대 문제로서 국토통일과 경제재건으로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두 가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통일을 열원하는 민족의 초초한 심정이 어찌 절치액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통일의 주체자는 우리 한국민족이다.”라고 민족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8) 김대중은 이 글에서 “우리는 재건에의 함마아를 내리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경제의 방향부터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이후 나타나게 될 박정희의 경제전략과의 차이가 잉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39).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말겠다는 자조의 정신과 노력이 확고할 때에만 우방은 우리와 더불어 통일과 부흥의 대업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조정신과 자주외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한편,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감행하기 직전 매형인 한정봉에게 보내 편지 속에 쓴 “국민에게”라는 시에서, “황파에 시달리는 삼천만 우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에 한이 되는 조국질서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혈 바쳐 충혈 원혼 되리라”라고 그의 마음을 피력한 바 있다(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7, 26)⁹⁾. 물론 글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전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던 박정희와 김대중의 생각을 온전히 그려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활자화된 위의 글들의 내용만을 보면, 민족의 비원으로서 통일과 경제재건,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조와 자주외교의 전략 등에서는 두 지도자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그만큼 식민지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당시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 소위 “민족적 비원의 성취”를 향한 정서와 의식의 공감대와 연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모두 성장 과정에서, 당시 조국과 민족이 처해있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적 정서나 의식을 일깨워 줄 많은 개인적 계기들을 경험하였던

9) 박정희는 1917년생으로 1924년생인 김대중보다 7년 연상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군인 생활을 하였기에 사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는 글은 거의 없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 주로 자연이나 개인적인 일상을 표현한 일기나 시를 남겼다. 1934년에 쓴 시 “금강산”이나, 1953년 12월 31일에 이순신 전기를 다 읽고 적은 일기 “북진통일” 등이 그것이다. 박정희가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60년 4월 23일 동래 범어사에서 열린 4.19 혁명 희생자 위령제에서 군수기지사령관으로서 연설한 조사였다. 이 조사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하여 꽃다운 생명을 버린 젊은 학도들이여!...”로 시작되어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여러분이 못 다 이룬 소원은 기필코 우리들이 성취하겠습니다”로 마무리되었다 (김종신 2011, 54). 5.16 이후 4.19에 대한 상징들을 지우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5.16 직후 박정희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의 어머니 권찬주에게 서대문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증언은 흥미롭다(김춘복 2010).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기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급기야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 상급생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일본의 대륙침략과 식민지 전략이 노골화된 상태에서 대구사범의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 치하에서 성적만 우수한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조갑제 1992, 67). 심지어 만주군관학교에서도 중국인과 한국인 생도들에게는, 일본 생도들과 달리, 쌀이 섞이지 않은 수수밥이 제공되는 식사차별이 일상화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나마 민족감정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정희는 1939년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시절 학생들에게 한국어, 태극기, 한국 역사 등을 비밀스레 가르쳐 '불온교사'를 자처하기도 하였고(정운현 2004, 60), 일본인 교장을 구타하고 만주행을 결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일화들은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민족적 현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조갑제 1992, 69; 정운현 2004, 72). 한편 김대중도 1936년부터 다닌 목포제일공립보통학교 4학년때 일본인 상급생을 구타하고 그 일로 학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결석이 잦았고 성적이 하락하는 등, 민족적 차별에 대한 울분을 표출한 바 있다(NHK 취재반 1999, 36-38). 이 같은 일화들은 많은 식민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고 느끼는 상황들로서 민족정서나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굳이 민족주의란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특정한 정치전략에 따른 동원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식민지를 겪은 청소년들에게 민족이라는 이미지나 개념, 정서, 그리고 의식 등이 싹트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식민지 청소년에게 일제는 반감의 대상임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다. 박정희가 “긴 칼 차고 싶어서”(조갑제 1992, 84) 선택하였던 만주는 당시 식민지 청년에게 심리적 불만을 해소하고 출세를 도모할 수 있는 미지의 개척지일 수 있었다. 군인이란 직업을 동경하였던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두 번이나 쓴 것(Eckert 2016, 97)도 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였다.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가 일본육군사관학

교에서 보았던 거대한 공업시설과 세계 최대 전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박정희의 뇌리에 하나의 꿈으로 각인되었고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실현되었다는 것이다(조갑제 1994, 96-97; 안경환 2013). 한편 김대중도 하의도에서 목포로 이사한 후 목포항을 오가는 일제의 군함과 상선들을 보면서 “참 일본은 저렇게 힘이 세구나” 하고 일제의 존재를 실감하고 압도당한 바 있다(김대중 2006.07.27). 그리고 김대중도 너무 갑갑한 국내 현실에 좌절하여, 당시 한국인 식민지 청년들이 근대 문물을 배우고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첩경이었던 만주 건국대학교로의 진학을 고민한 바 있었다(김대중 2006.09.11; 김경재 2016, 34-37). 식민지 조국에서 겪었던 가난과 차별적 성장 환경, 출세욕 등 성격적 특성, 그리고 시대적 맥락 등이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박정희와 김대중의 서로 다른 정치행로도 이 같은 배경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¹⁰⁾. 향후 서로 다른 정치적 행로를 걷게 된 박정희와 김대중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식민지 청소년으로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간직한 민족적 정서나 의식이 사라지기 힘든 민족주의의 뿌리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10)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 및 확산과 관련하여 식민지 경험은 의미있는 이론적 쟁점의 하나이다. 유럽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사례로 식민지와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식민지 권력이 통치를 위하여 특정 종족 집단을 만들었다”는 견해(Calhoun 1997), 특정 종족에게 더 많은 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해석(Von Oppen 1994),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종족의 리더들은 집단적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Hobsbawm and Ranger 2017). 또한 “반식민주의 민족주의는 국가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로서 경제사회적 차별이 없어도 민족주의가 발생한다는 정치적 해석이 있는 반면(Breuilly 1993), 경제사회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경제사회적 차별이 소멸되더라도 종족적 갈등은 소멸되지 않는다 견해(Jeffrelot 2003)가 있다.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화된 한국인을 만들어 제국과 민족의 불일치를 숨기려 관제 민족주의를 구사하였는데, 한국 민족도 본능적으로 ‘외래의(foreign)’ 통치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Anderson 2016, 109-111). 식민지를 경험한 비유럽국가의 민족주의를 분석한 차터지는 식민지에서 누가 공동체를 상상하는가 라는 논점을 새로이 제기하면서, 해당 민족이 서구의 물질적인 근대성은 받아들여되 민족의 고유한 정신은 보존하였다고 주장하였다(Chatterjee 1993).

IV. 정치전략과 경제제도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두 개의 행로

동일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아직 각자의 정치전략이 구체화 되기 이전의 소년과 청년으로서, 박정희나 김대중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및 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민족성과 당시 한국이 처했던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정치인으로서 초기에 구상하거나 실행한 몇 가지 정책들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민족적 비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을 당위적인 목표로 지향한 사실, 농업 육성과 수입대체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 산업화 전략, 국제무대에서 자주외교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족적 의지 등이 그것이다¹¹⁾. 하지만 민족정서 차원에서의 동질성이나 초기 정책에서의 상당한 유사성(류상영 2013, 151-153)에도 불구하고, 제2

11) 어떻게 민족이 상상되었고, 이것이 정치적 힘을 가진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는 한국의 민족주의 분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험과 일본에 의한 간섭이라는 이중고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건국 영웅으로 불리고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비동맹외교와 교도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수카르노의 사례는 앤더슨의 민족주의 연구에 좋은 소재였다. 앤더슨은 초기 연구에서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수카르노와 우호관계에 있었던 공산당과 일부 군부의 쿠데타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수하르토의 반격 쿠데타 및 이어진 극단적 폭력과 학살에 대한 현지 경험 분석에서, 이 정치격변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 제국과 구제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군부내 장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인도네시아내 자카르타 등 서구화된 도시와, 자바 지역의 전통적이고 가난하며 급진적-민주주의적인 사회 사이에 존재 하였던 큰 문화적 간극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반공을 내세워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시각으로 비쳐 앤더슨은 1998년 수하르토가 실각될 때까지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그는 이어진 박사논문에서, 네덜란드 군대와외 전투와 독립혁명 시기(1944-1946) 자바섬 지역내 빈곤사회에서 나타난 청년 엘리트들의 급진적이고 민주주의적 활동은 단지 경제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고, 당시 엘리트를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한 정당 및 각종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원하였으며, 이것이 민족을 상상하게 하고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문화적 뿌리가 되었으며, 민족주의가 실질적인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 2016, 120-122; Bergholz 2018, 520).

장의 연관어 분석에서 민족이란 단어가 각각 다른 개념들과 더 자주 사용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와 김대중은 곧 서로 다른 민족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1. 경제개발과 민족주의: 박정희의 행로

박정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이자 목표는 경제개발이었다. 박정희가 전체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 민족은 3번째로 빈도수가 높아, 박정희가 정치 현장에서 민족주의를 많이 동원하였고 민족 개념이나 민족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박정희의 연설에서 경제(4위), 발전(6위), 건설(9위), 개발(12위) 등의 단어들의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¹²⁾. 이 같은 차이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박정희가 생각하였던 민족주의는 그가 당시 주요한 정치사건이나 사회현실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 및 정책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민족의 영구혁명”(박정희 1963, 27) 이라고 규정하였고, “5.16 군사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과 ‘민족국가의 중흥창업’에 있다”(박정희 1963, 259)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박정희는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오늘 우리의 주변이 모든 부면에 걸쳐 「빈곤」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생기를 잃은 무기력과 침체된 양상을 시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산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정희 1964.01.10). 그에 의하면, 부정적 전통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식이나 민족성도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12) 연설문에 등장한 단어들의 전체 순위를 보면 김대중의 경우, 경제(4위), 발전(25위), 개발(183위), 건설(304위) 등으로 나타났다.

가 1964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정희에게서 민족의 재창조는 “민족의 기백과 정신이 더욱 새로워져야” 가능한 것이었다(박정희 1964.08.15). 1969년 10월 3일 개천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는 “한 민족의 성쇠는 전적으로 그 시대를 창조하는 국민들의 정신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박정희 1969.09.03).

박정희는 그가 말한 ‘민족의 산업혁명’과 ‘민족중흥’을 위하여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과 대기업이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농업 위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은,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이 수정되면서, 중단되었고 더이상 박정희 민족주의의 핵심 경제전략이 될 수 없었다.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그가 1962년에 비밀리에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통화개혁은, 박정희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을 수정하여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지향형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류상영 2020). 대기업 중심의 압축적인 공업화와 수출지향형 전략은 경제 분야에서 박정희 민족주의의 핵심 내용으로써 그의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박정희는 1967년 제4회 수출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분발해서 수출을 제일주의로 하는 수출입국(立國),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빨리 우리 산업의 근대화, 산업의 공업화를 달성하고 그것이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출산업의 성장과 수출고의 증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정희, 1967.11.3). 아울러 그는 1967년 대전 유세에서, “투자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른 대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박정희 1967.04.17)고 덧붙였고, 같은 해 저축의 날 담화문에서는 내자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 같은 주장들은, 이전 정부들에 대한 그의 비판적 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끈질긴 사대주의와 환상적 대응책이 70년대 한국 민족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병폐”라는 진단에 기초하였다(박정희 1967.09.15).

박정희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그가 지향한 정치체제 혹은 민주주

의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구 정치인들의 생각을 가시적 민주주의 혹은 사대적 민주주의로 비판한 박정희는 1963년 9월 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첫 유세 연설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공식화하였다(김종신 2011, 236-237). 그는 근대화는 공업화와 산업개발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고 가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 즉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종신 2011, 289). 이 같은 생각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의 기획과정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공유하였던 대구사범 동기생인 황용주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부산일보 주필이자 편집국장으로서 황용주는 “아시아에서는 독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정부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을 리드해야만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민간주도로 해서는 백년하청이다”라는 확신을 박정희와의 만남에서 수차례 피력하였고 박정희도 이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였던 것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36). 1967년 “자립에의 의지”라는 방송연설에서,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제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주체성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차 영생할 안주지”라고 하면서 “자립에 기반을 두지 않은 민족주체성이나 민주주의는 한갓 가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신조라고 밝혔다(박정희, 1967.04.15). 1970년 신년사에서 박정희는 “한국 민족주의는 밖으로 자주적인 주체의식을 앞세우며 안으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더욱 신장하고 토착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정희 1970.01.01). 제2장의 단어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가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에 민주 혹은 민주주의가 자주 등장하였고 민주주의가 민족이란 단어와의 연관성도 높다. 이 같은 단어의 연관성은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유신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경제전략이나 권위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고려하면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연설문

이나 다른 인쇄물 등에서 민주 혹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위와 같은 민족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그의 생각과 전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 있던 당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박정희의 정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의지와 전략, 이를 구체화할 대표적인 경제제도와 정책들의 실행은 그의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박정희의 민족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그의 한국적 근대화를 추동하는 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민족주의를 확산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으로서 재건국민운동을 시작하였고,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민족주의의 동원 기구로 활용하였으며, 새마을운동도 농촌 지역에서 정신적 경제적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7년 재건국민운동 창립 3주년 기념 치사에서 “모든 근대화작업은 국민정신의 근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국민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박정희 1967.08.05). 박정희는 또한 자립경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근대화 운동으로서 제2경제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공화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조직이 이 운동의 추진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68년 “제2경제 운동 실천 국민 쉼기대회 치사”에서, “제2경제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지상 명제인 조국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적 주체의식을 확실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의식을 투철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밝은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박정희 1968.09.28) 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시 인간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의 민족주의의 한 축으로 민족통일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1968년 공화당 당원에게 보내는 특별담화에서,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국가 목표는 우리 민족의 재통일”이며 “민주적인 통일 국가의 성취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박정희 1968.08.15) 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1966년 대통령 연

두교서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과 조국근대화가 남북통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민족주의를 종족상징주의 혹은 원초적 민족주의, 아니면 근대화 민족주의 등 어느 시각에서 접근하든, 당시 한국의 일반 국민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은 저버릴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일 민족과 국가라는 민족의 상징성을 충족시킬 목적이든 혹은 같은 혈연으로서 민족이 합쳐야 한다는 사라지기 힘든 원초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근대화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민국가를 정치적으로 완성하기 위하든, 민족통일은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매우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고조되고 남북체제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가 밝힌 남북통일은 승공 혹은 멸공을 통한 민족통일이었고, 경제개발 경쟁에서의 승리는 민족통일을 위한 첫 단계의 과제였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도 이같은 민족적 여망과 정치적 전략이 합쳐져 선택된 정책이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다른 한편, 박정희는 집권 이전부터 한국 군부와 한미관계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김종신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군대는 우리 국민만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우방의 일원으로서 희생적으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원조를 얻어 먹어도 배짱을 튼겨 가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왜들 꼴사납게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어!”(김종신 2011, 90)라고 말하면서, 한국군 장성들의 저자세와 미국의 소극성 및 오만함에 분노하였다고 한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집권 이후 미국을 첫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검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서 외교적 결례일 수 있지만 당시 당당한 자주외교의 상징적 행동 (김관수 2011, 131; 안경환 2013)으로 비쳤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지켜내고자 한 민족적 자존심과 오기를 표현한 것이지도 모른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부터 민족적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포항제철 건설(Rhyu and Lew

2011), 1970년대 주한 미군 철수를 계기로 박정희가 추진한 자주국방과 핵개발 시도 등은 그의 민족주의적 의식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김대중의 행로

김대중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이자 목표는 민주주의였다. 김대중의 연설문 전체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박정희와 동시대였던 1979년까지를 보면 전체 단어 중 26위로, 박정희의 3위에 비하여, 그 빈도수가 낮은 편이었고, 대통령 재임기에도 16위, 퇴임기에도 19위로 매우 자주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만큼 김대중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박정희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반면, 재임전 김대중이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 민주주의와 민주는 각각 7위와 12위를 기록하였다¹³⁾. 그리고 김대중이 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한 단어는 문화, 통일, 민주, 세계, 평화, 민주주의 등이었다. 이 단어들은 김대중이 간직하고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할 정치전략과 경제제도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정치권력을 이미 쥐고 있던 박정희가 동원하였던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주의는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도 하지만 정권을 비판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이념이나 전략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동원한 민족주의와 이에 기초한 각종 정책과 경제적 제도들이 갖는 약점과 한계를, 자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와 경제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비판하고 대체하고자 하였다. 김대중은 이미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가 민족주의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동일한

13) 연설문에 등장한 단어들의 전체 순위를 보면, 박정희의 경우, 민주(93위), 민주주의(238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단어를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하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 정책을 자신의 논리로 재해석하여,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정치적 담론 및 이념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대중은 “민족의 에너지에 방향을”이라는 <인물세계> 1970년 기고문에서, 1960년대에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시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박정권이 60년대에 저지른 배리와 기만을 분쇄하고 민족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결집해서 거대한 폭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우수한 자질과 개발된 두뇌와 근면한 개성을 가진 우리 민족은 올바른 전진의 방향을 잡는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행복을 차지할 자격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대중 1970a).

김대중이 생각한 한국의 민족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개조되거나 재창조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김대중은 “우리 민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1981년 9월 30일자 옥중서신에서 역사상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되게 비교하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도 큰 손색이 없는 기본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만이 유리하게 특별히 뛰어난 민족도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기술하고 있다(김대중 2000, 112-120; 임진영 2015, 71-72)¹⁴⁾. 김대중은 박정희와 대조적으로, 가난의 한에 대한 절박함이 심하지 않았고, 한국 민족의 역사나 문화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에 대하여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다양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은 우리 민족과 역사에 남긴 유교의 영향에 대하여도 유교의 문약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유교 철학에 내재된 민주주의 이념을 재발견하고자 하였다(Kim 1994). 그리고 그는 민족적 애환과 슬픔이 스며있는 아리랑에 대하여도 패배주의와 운명론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문화적 자산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Rhyu 2015, 33-37). 그에게는 가난의 한을 풀기 위한 경제개발 보다 독재의 한을 풀기 위한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민족주의의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한국 민족주의의 목

14) 김대중은 이 글에서 우리 민족의 단점의 하나로 진취성의 결여를 꼽았는데, “민족의 진취적 의욕을 고취한 점은 박대통령의 공”이라고 적고 있다.

표를 설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제도나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계급을 분리하여 사고함으로써¹⁵⁾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려질 수 있는 노동운동의 비민주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즉 김대중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북을 통일하고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해야 할 민족적 지상명령을 등한히 한 점”을 비판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집권과 독재의 도구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악용과 희생을 당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대중 1955.10.01).

김대중은 자신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체제를 주장하였다. 그는 1971년 그가 대통령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중경제연구소 이름으로 간행된 선거자료집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대중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서구적 대중사회의 기반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한 중산층만 존재하는 과도적인 사회에 속하며, 한국 경제는 관료적 독점자본과 전근대적 상업자본의 성격이 강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소수 특권 세력을 제외한 국민 계층의 연대를 통하여 한국적 대중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전략으로 “민족경제의 자립 자주를 위한 자립적 국민경제(내포적 공업화)에 의한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비판하고 민족자본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우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선진제국과의 승산없는 충돌만 초래하고 우리의 능력에도 겨운 중화학공업 분야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

15)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정리한 전체 단어의 빈도 분석을 보면, 1979년 이전까지 김대중은 노동자(75위)와 노동(363위)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근로자(2021위)와 근로(1658위) 등의 단어는 덜 사용하였다. 반면, 박정희는 노동(869위)과 노동자(1194위) 단어를 선호하지 않았고, 근로자(267위)와 근로(1195위)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김대중은 민족을 무시하고 계급을 강조한 공산주의도 비판하였지만, 계급의 문제를 무시한 채 민족주의의 명분 아래 국가 주도로 독점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박정희의 전략에 대하여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가 노동, 중소기업, 중산층, 독점금지법 등에 대하여 자주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야에 주력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분업관계를 확립하여 한없는 발전과 수입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대항논리를 주장하였다(류상영 2013, 154-159). 그리고 1970년 사상계 신년호(김대중 1970b)에서 김대중은 “이 나라의 근대화를 가장 올바르게 추진하고 우리 국민대중을 사이비 민주시민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의 대안이 대중민주체제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3선개헌이 이루어지고 개발독재체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박정희의 ‘한국적(혹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하기에 힘든 처지였다.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선점하여 동원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김대중이 유사한 동원 전략을 채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김대중으로서는 같은 단어인 민족주의를 그의 정치적 경쟁자와 유사하게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는, 어떤 개념이나 목적이든, 민족 및 민족주의가 갖는 정서적 반향과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김대중은 민족과 연관성이 큰 정책이나 사건에 집중하여 그가 생각한 민족주의를 차별화시키고 확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행한 김대중의 아래와 같은 연설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족적 정서나 민족주의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전략이 보인다. “나는 신민당 정권의 외교방향으로 민족외교를 제창합니다. 외교의 목적은 민족의 영예와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협조하고 평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제1차적으로 추구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협조는 우리 외교의 기본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이익과 주체성을 견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김대중 1970.10.16). 그가 사

용한 민족외교 개념은 이 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박정희 정권이 반민족인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김대중은 신민당으로의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국토방위를 무시한 월남파병을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민족이익을 버린 반민족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대중 1967.04.01). 그리고 1971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은, “박정권이 추구하는 있는 것은 진정한 민족 외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정권 안보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족의 안보는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지지하며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만큼 피 흘릴 각오가 돼 있느냐의 정도에 좌우된다... 박정권은 민족안보의 주도적 담당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함으로 강조하였다(김대중 1971.01.23).

원초적 민족주의나 종족 상징주의 등 서구에서 논의되는 민족주의 이론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고 살아 있는 민족정서나 민족주의적 열망은 쉽사리 사라질 수 없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위기 시에 민족주의적 열망과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경제 위기를 맞은 한국에서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은, 결코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가 국민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Rhyu 2015, 59-64). 많은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재현으로 인식하였는데, IMF 관리 체제 하에서 민족의 잃어버린 경제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과 총체적 개혁을 추동하기 위하여 제2 건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박정희가 실시하였던 새마을운동과 비슷하게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1998년 ‘전국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국가의 틀을 새로이 짜는 총체적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국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제2 건국운동'의 선봉이 되도록 합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김대중 1998.12.08).

분단 민족으로서 통일은 누구에게나 한국의 민족주의와 근대 민족국가를 완수하는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 점에서는 김대중과 박정희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 1971년 대통령선거 기간의 정책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김대중과 박정희 모두 승공 혹은 멸공 통일을 추구하였다¹⁶⁾. 김대중은 1967년의 기고문에서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북괴가 비협조적이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통일에의 역량을 강화하여 통일에의 압력을 가증시키고 민주적 승공통일에의 여건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대중 1967.10.01). 하지만, 김대중은 그 이후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창하고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른바 3단계 통일론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000년 6월 13일 순안공항에 내린 김대중의 연설은 김대중 자신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민족정서와 민족주의를 일깨우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싶어 여기에 왔습니다...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읍시다”(김대중 2000.06.13)라고 말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민족정서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김대중은 반독재투쟁 시기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비민주적 현실을 알리면서도 민족의 주체성과 국민의 자주적 노력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인식을 견지하였다. 그는 미국에게도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단지 권위주의 정권을 돕는 것은 중단하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했던 것이다. 1983년 1월 5일에 미국 CNN에서 방송된 프리먼 리포트에 출현한 김대중은, “레이건 행정부

16) 김대중의 연설에 등장하는 통일이란 단어의 빈도 순위는 재임 전, 재임기, 퇴임기에 각각 3위, 84위, 11위를 기록하였다. 박정희의 경우는 14위 기록하였다. 두 지도자에 있어서 모두 통일은 자주 언급되는 단어였다고 할 수 있다.

가 내치에 관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덕적 지지를 바랄 뿐이고 독재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여야지 미국의 문제여서는 안됩니다”(김대중 1983.01.05). 하지만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다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김대중은 민족주의와 함께 현실주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6.15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였던 박지원에게 회담 장소에서의 “숨소리까지 미국 대사에게 얘기하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한 한미공조를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7/07/24). 이 점은 미국에게 많은 것을 숨기려 하였던 박정희의 배타적 행태와는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 같은 차이¹⁷⁾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과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등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데탕트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이어서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어진 여건 속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적 맥락의 차이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관련 사료 분석을 통하여 그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은 두 인물이 가졌던 생각과 전략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보여주었다. 동일한 민족의 뿌리를 가졌지만, 박정희와

17) 김대중의 연설에 등장하는 미국이란 단어의 빈도 순위는 재임 전, 재임기, 퇴임기에 각각 2위, 34위, 3위로 기록되었고, 박정희의 경우는 148위로 나타났다.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갖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였던 시대적 맥락과 민족적 차별은 두 지도자가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정치적 길을 걷게 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민족주의의 목표와 전략도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과 목표로 설정한 반면,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민족주의의 목표이자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정서와 의식 수준에서의 민족은 항상 살아있었고 쉽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 및 정치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상상되거나 발명되기도 하였고 민족주의가 다른 모습으로 동원되거나 진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는 연구자가 가졌던 지적 가설과 호기심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위의 해답을 찾기 위한 본령은 여전히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방법론적 심화와 사회과학적 분석,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대한 인문학적 천착에 있을 것이다.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현상 및 제도 등을, 어떻게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얼마나 깊이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해석해 낼 것인가는 학문적·현실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 분석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스쳐 지나간 많은 세부 주제나 사건, 쟁점 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민족’과 ‘민족주의’가 정치경제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어 가는 장면들은 별도의 기회에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https://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9.10.15).

- 김경일. 2020. 『한국의 근대형성과 한국학』.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경재. 2016.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서울: 도전과 미래.
- 김대중. 1954. “갑오년 2대 과업: 자조의 노력으로 통일과 민생 해결.” <새별> (1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1권, 37-4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55.10.01.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사상계> (10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1권, 17-18.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67.04.01. “왜 우리당이 이겨야 하나-신민당.” <청맥> (4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4권, 570-575.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67.10.01. “공화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경연구> (10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5권, 17-24.
- 김대중. 1970a. “민족의 에너지에 방향을.” <인물세계> 1970년 기고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406-409.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0b. “70년대의 비전: 대중민주체제의 구현.” <사상계> (1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216-23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0.10.16.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구현하자.” 1970.10.16.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358-36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1.01.23. “대중반정을 실현하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412-42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83.01.05. “프리먼 리포트에서의 대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0권, 13-26. 서울: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 김대중. 1998.12.08. “제2의 건국의 중심이 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 1998년 전국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 연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2권, 224-228.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김대중. 2000. 『김대중 옥중서신』. 서울: 연세대학교.
- 김대중. 2000.06.13. “긴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5권, 92-9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2006.07.27. “김대중 구술사 인터뷰 제1차 (질문자: 류상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김대중. 2006.09.11. “김대중 구술사 인터뷰 제3차 (질문자: 류상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김대중. 2010. 『김대중자서전 1』. 서울: 도서출판 삼인.
- 김동노. 2010.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34권, 203-224.
- 김수자. 2006.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6월항쟁-김대중정권.” 『사회과학연구』. 14권 2호, 44-78.
- 김정훈. 2020. 『한국인의 에너지, 민족주의』. 서울: 피어나.
- 김종신. 2011. 『영시의 햇불-박정희대통령 수행기자 7년의 기록』. 서울: 기파랑.
- 김춘복. 2010. “작가의 말.” 장편소설 꽃바람 꽃샘바람 출판기념회. 10월 16일. <https://blog.naver.com/pilwooje/120116833887> (검색일: 2020.11.20).
- 김판수. 2011. 『시인 신동문 평전: 시대와의 대결』. 서울: 북스코프.
- 류상영. 2013. “대중경제론에서 병행발전론까지.” 류상영, 김동노 편저.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139-175.
- 류상영. 2020.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정치연구』. 13권 3호, 119-153.
- 문상석. 2018. “박정희와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42권 1호, 43-70.
- 박의경. 2015. “한국민족주의의 두 얼굴: 국가로의 통합과 민족의 통일.”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4권 1호, 1-26.

-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향문사.
- 박정희. 1964.01.10.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4.08.15. “8.15 제19주년 경축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4.15. “자립에의 의지 방송 연설.”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4.17. “대전유세 연설.”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8.05. “재건국민운동 창립 제3주년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9.15. “제4회 저축의 날 담화문.”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11.03. “제4회 수출의 날 기념식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8.08.15. “공화당 당원동지에게 보내는 특별담화.”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8.09.28. “제2경제운동 실천 국민결기 대회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9.10.03. “제4302주년 개천절 경축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70.01.01. “1970년 신년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7. 『박정희전집 01: 박정희 시집』.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 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권 2호, 57-78.
- 안경환. 2013.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 윤형준 “박지원, DJ는 숨소리도 미국대사에 얘기하라 해,” <조선일보>, 2017.07.24.
- 이창길. 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 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165-189.
- 임진영. 2015. “희망의 논리, 화해의 수사학: 김대중 글쓰기의 변화과정과 연설문의 수사학적 특징 분석.”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저작목록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40-106.
- 정운현. 2004. 『실록 군인 박정희』. 서울: 개마고원.
- 조갑제. 1992. 『박정희 1: 불만과 불운의 세월 1917-1960』. 서울: 까치.
- 조수곤, 조재희, 김성범. 201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트렌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41권 5호, 453-460.

-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권 2호, 43-7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성남: 현대사연구소.
- 홍석률. 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권, 169-203.
- 홍주현, 윤해진. 2014.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4권 9호, 24-44.
- NHK 취재반. 1999. 『김대중자서전 1: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서울: 도서출판 인동.
- Anderson, Benedict. 201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 Bergholz, Max. 2018. “Thinking the Nati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by Benedict Anders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3(2): 518-528.
- Breuilly John. 1993. *Nationalism and The Stat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alhoun, Craig. 1997.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hatterjee, Partha. 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ung, Chung Joo, and Han Woo Park. 2010. "Textual analysis of a political message: The inaugural addresses of two Korean presidents." *Social Science Information* 49(2): 215-239.
- Conversi Daniele. 2008. “Democracy, Nationalism and Culture: A Social Critique of Liberal Monoculturalism.” *Sociology Compass*, 2(1): 156-182.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Feldman, Ronen and Ido Dagan. 1995.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DT).”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 Discovery and Data Mining (KDD-95)*, Montreal, Canada, August 20-21, AAAI Press, 112-117.
- Gellner, Ernest. 1971.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 Greenfeld, Liah.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2017.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tho, Andreas, Andreas Nummerger, and Gerhard Paaß.. 2005. "A Brief Survey of Text Mining." In *LDV Forum-GLDV J. Comput. Linguistics Lang. Technol.*, 20(1): 19-62.
- Jaffrelot, Christophe. 2003. "For a Theory of Nationalism." *Research in Question*. CERI. HAL Id: hal-01065058
<https://hal-sciencespo.archives-ouvertes.fr/hal-01065058> (검색일: 2018.02.15).
- Kim, Dae-jung. 1994. "Is Culture Destiny?." *Foreign Affairs*, 73(6): 189-194.
- Moon, Chung-in. 2012. "Unraveling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Minjok* and *Gukmin*." Gilbert Rozman, ed. *East Asian National Identity: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19-237.
- Narin, Tom. 1997. *Faces of Nationalism: Janus Revisited*. London: Verso.
- Neustadt, Richard E. 1990. *Presidential Power and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New York: Free Press.
- Oppen, Achim von. 1994. "Mobile Practice and Local Identity." Heidrich, Joachim ed. *Changing Identities: The Transformation of Asian and African Societies under Colonialism*. Berlin: Centre for Modern Oriental Studies.
- Özkirimli Umut. 201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hyu, Sang-young and Seok-jin Lew. 2011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in Byung-kook Kim &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322-344.

- Rhyu, Sang-young. 2015. *The Spirit of Korean Developmen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Roshwald, Avriël. 1993. "Untangling the Knotted Cord: Studies of Nationalism."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4(2): 293-303.
- Schäffner, Christina. 1996. "Editorial: Political speeches and discourse analysis." *Current Issues in Language and Society*, 3(3): 201-204.
- Shin, Gi-Wook, James Freda and Gihong Yi. 1999.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5(4): 465-484.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 2010.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Cambridge: Polity.
- Tamir, Yael. 1995. "The Enigma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47(3): 418-440.
- Tan, Ah-Hwee. 1999. "Text Mining: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Challenges." In *Proc of the Pacific Asia Conf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AKDD'99 workshop on Knowledge Discovery from Advanced Databases*, 65-70.

투고일: 2021.02.20.	심사일: 2021.03.18.	게재확정일: 2021.04.05.
------------------	------------------	--------------------

Two Paths of Nationalism in South Korea: A Text Mining Analysis of Official Speeches of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Rhyu, Sang-Young | Yonsei University

Kim, Min-Jung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ll official speeches of the former Korean presidents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to explore how they perceiv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and how they realized those concepts in their political careers. We used text mining approaches to not only find the statistics of the words these two presidents used, but also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ceptions of a ‘nation’ got materialized into their political strategie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text mining results show that Park used the word ‘nation’ in his political rhetoric a lot more often than Kim did. Comparing the co-occurring words in their speeches, we foun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s of which they talked about the nation. Both Park and Kim said the word ‘nation’ most often with the words ‘reunification’ and ‘culture.’ However, while Park often talked about the nation with the word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spirits, Kim did with the words related to democracy. Park mobilized nationalism as one of his political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whereas Kim used nationalism as his strategy to fight for democracy. They shared some similar national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due to their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ir younger days. However, their ‘nationalism’ took the different paths as their concepts of ‘nation’ got combined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Key Words | Nation, Nationalism, Park Chung-hee, Kim Dae-jung, Speech, Text Mining